

원희룡 장관, 스마트한 기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수준 강화해 나갈 것

- 건설현장 디지털화 관련 스타트업과 제4회 국토교통부×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(수)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“제4회 국토교통부×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” 행사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,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하였고, 건설 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* 2인(무스마 대표 신성일, 두아즈 대표 김영태)의 창업 동기, 기업 성장과정,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하였다.
 - * (무스마) 영상·자동센서 기반 건설현장 노무·장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
(두아즈) 건설현장 안전·감리 관련 서류의 디지털화(모바일 실시간 전송 등) 플랫폼 운영
 - 특히,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·표준화와 함께,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-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“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,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,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”이라면서,
 - “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, 스마트 얼라이언스 등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책임자	팀 장	김혜진 (044-201-3252)
		담당자	사무관	최민중 (044-201-3264)
담당 부서 <건설안전>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전 진 (044-201-3574)

□ 커피챗 행사 목적

-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해 국토교통 관련 스타트업과 소통하여 규제혁신,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모색
- 커피챗 시즌2의 경우 사내벤처, 창업공간 등 스타트업 육성 현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소통

□ 운영기간

- `22년 7월부터 `23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즌 1을 운영하였고, `23년 4월부터 시즌2 운영 중
- (시즌1) `23. 7. 26. ~ `23. 1. 8. (총 8회 개최)

분야	프롭테크	디지털트윈	모빌리티(서비스)	모빌리티(자율주행)	스마트시티	UAM	스마트건설	CES
일자	7.28	8.18	9.14	10.4	10.26	11.16	12.28	`23.1.8

- (시즌2) `23. 4. 4. ~ 현재

분야	현대차 사내벤처	카이스트 창업원	K-City	건설안전			
일자	4.4	5.16	7.7	9.6			